

매 수	참고자료	사 진	담당부서 : DMZ정책과 DMZ개발팀
2	○	-	과장 : 설종진 (031-8030-2650)
			팀장 : 박순향 (031-8030-2671)
			담당 : 장영예 (031-8030-2672)

도,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본격화 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

- 경기도-국방부,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 완료
- 4월 중 대체 시설 기부 건의, 상반기 중 캠프그리브스 소유권 이전 완료 추진
- 하반기부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기반 시설 조성 착공

올해 캠프 그리브스의 소유권이 완전히 경기도로 이전됨에 따라, 이곳을 디엠지(DMZ) 대표 평화 관광 거점으로 만들려는 경기도의 ‘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사업’ 구상이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.

경기도는 국방부와 ‘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’의 최종합의각서를 지난 4월 4일 자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.

‘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’이란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도에 양여하는 대신, 이에 상응하는 군 대체시설을 도가 국방부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

파주시 군내면 디엠지(DMZ) 일원에 자리 잡은 ‘캠프그리브스’는 본래 주한미군이 6.25 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로 파병되기까지 약 50여 년간 주둔했던 민통선 내 유일 미군 반환 공여지다.

이번 합의로 지난 2012년 10월 경기도와 국방부 간 캠프그리브스 활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여 만에 ‘캠프그리브스’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.

2021년 6월 군 대체시설 준공 이후 추진한 ‘기부 및 양여 재산의 감정평가’ 결과를 기존 합의각서 상 금액에 반영, 기부 대 양여 재산 규모를 이번 최종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확정했다.

이에 따라 도는 막사, 초소, 정비고, 창고,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2,637㎡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제공하고, 국방부로부터 11만8,935㎡ 규모의 ‘캠프그리브스’ 부지를 넘겨받게 된다.

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,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본격 돌입한다.

이를 위해 이달 중 국방부에 대체 시설 기부를 건의하고 7월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칠 방침이다. 이어 올 하반기부터 화장실,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.

도는 이르면 오는 2023년 하반기 중 공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또한 캠프그리브스 일원 임진각 관광지, 마정중대, 장산소초, 임진소초, 도라산평화공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여건 분석, 시설 간 연계성 등을 토대로 ‘종합개발계획’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.

도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조성될 경우 평화곤돌라, 임진각, 도라산 평화공원, 제3땅굴, 도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“2023년 정전 70주년과 더불어 장기간 도 차원에서 캠프그리브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더 의미가 크다”며 “이른 시일 내에 역사공원을 조성해 도민들 품에 돌려드릴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

1953년 지어진 미군부대의 보전 및 재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, 임진각 관광지와 연계한 평화, 역사, 문화예술의 거점육성

□ 사업개요(현황)

구 분	① 기부사업 / 軍 대체시설 설치사업	② 양여사업 / 역사공원 조성사업
위 치	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일원	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5-3번지 일원
사업규모	252,637㎡ / 건물 14동 / 공작물 58식	118,395㎡ / 건물 64동 / 공작물 43식
주요시설	막사, 초소, 정비고, 창고, 훈련시설 등	역사공원 및 문화시설
총사업비	379억원	192억원('21년까지 99, '22년 74, 향후 19)

□ '22년도 추진계획

